

비판사회학 소식지

권두언

비판사회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 김철식
(비판사회학회 부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비판사회학회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1984년 “한국 사회과학의 비판적 혁신과 진보적 연구를 통한 사회변화를 표방하며” ‘한국산업사회연구회’를 결성했고, 1988년 학술지 <경제와 사회> 발간을 시작했다. 1996년에는 연구회 딱지를 떼고 ‘한국산업사회학회’로 개칭하면서 한국 사회학계의 대표적인 학회로 자리잡게 됐다. 2007년에는 다시 지금의 ‘비판사회학회’로 이름을 바꾸어 10여 년째 활동하고 있다. 이상 비판사회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혁을 찾아 ‘사알짝’ 가일필해서 여기에 옮겼다. 참 단출하게 연혁을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맘에 든다. 거창하게 떠들지 않는, 40년 격동의 한국 사회에서 비판적 사회과학 학문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분투해 왔지만, 굳이 그걸 걸음으로 드러내지 않는 차분함이 좋다.

필자가 처음 비판사회학회를 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대학원에 입학해서다. 석사과정 첫 해 봄에 학회가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서울 명동의 모처에서 매주 1회씩 대여섯 차례 강좌를 개최했었는데, 여기에 동료 대학원생들과 함께 열심히 참여했었다. 당시 신입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볼 때 어마어마한 지적 포스를 뽐내시는 ‘쟁쟁한’ 선생님들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시고 함께 뒷풀이를 했던 기억이 난다. 구체적 주제는 기억나지 않지만,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이념적 혼란, 요란한 세계화의 구호, 현대성에 대한 반성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부상과 같은 1990년대 초중반의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쟁점들에 대해 한국의 진보적 사회학자, 사회과학자들이 가졌던 고민과 내공을 강의에서 느꼈던 기억이 난다.

(다음 면 계속)

다음으로 비판사회학회와 인연을 가졌던 것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원에 복학한 이후이다. 외환위기 직후였는데 학회에서 운영하는 산업노동분과 세미나에 참여했었다. 역시나.. 쟁쟁한 선배님들께서 대학원생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여했다. 민주주의 이행과 노동운동, 파업 연구, 해방 전후 한국의 노동운동, 정당과 노동조합 관계, 노동과 페미니즘, 여기에 주기적으로 진행됐던 국내외 주요 저널의 최근 논문 읽기 등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었다. 당시 산노분과 세미나는 세부 전공을 선택하고 연구자의 기본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 나에게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줬다.

박사학위를 받고 어떻게 하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됐다. 춘계학술대회와 가을 정기학술대회, 당시 새로 기획해서 시작한 여름 대학원생 워크숍, 겨울 동계 워크숍과 총회, 중간중간 여러 콜로키움 등등... ‘무슨 학회가 쉬지 않고 돌아갈까, 이렇게 맨날 행사하면 도대체 연구는 언제 하나’, 뭐 이런 불만이 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회에 참여했었다. 오늘날 소위 ‘등재’ 학술지라는 제도가 자리잡으면서 <경제와 사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술지에서 논문의 형식적 완결성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정교하지 못한 새로운 사고들이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형식적 완결성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건 아닌지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도 <경제와 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는 것 같다. 매달 열리는 편집위원회에서는 특집과 기획, 새로운 연구를 소개하는 서평, 그 외 다양한 코너를 기획하고 좋은 필자를 찾느라 매번 몇 시간씩 머리 싸매고 씨름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다.

이렇게 비판사회학회와 여러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왔다. 학회와 인연을 시작하던 연구자로서의 입문 초창기에 하늘처럼 대단해 보이던 선배들은 어느새 대부분 은퇴를 했고 나도 더 이상 학문후속세대나 신진 연구자로 간주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비판사회학회는 연구자로서 지금까지의 내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학회가 됐다.

지난 긴 시간 비판사회학회가 매달려 왔던 제일 큰 화두는 ‘비판’일 것이다. 실제로 비판사회학회는 틈만 나면 ‘비판이 무엇이나’, ‘비판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학술대회를 열고 콜로키움을 하고 세미나를 해왔다. 나에게 비판이란 일종의 감정적 편향이 아닌 과학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접근, 표면적 현상 이면의 드러나지 않는 사회적 관계와 동학을 찾아내는 일, 뭐 이런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이걸 현실에서, 연구의 장에서 어떻게 찾아내고 구현해내는가는 그리 쉽지 않다. 그럼에도 계속 질문하고, 다른 연구자들의 새로운 연구들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편향들을 성찰하고, 이면에서 작동하는 논리와 드러나지 않는 권력에 대해 비판의 날을 베풀는 것이 끝까지 씨름해야 할 업보라고 생각한다. 비판이라는 화두를 공유하고 질문하는 학회의 동료 선후배 연구자들이 반갑고 고맙다.

(끝)

춘계학술대회

2024 비판사회학회 봄학술대회

정치협오와 협오의 정치 — 이론과 현실

2024. 4. 19. 금 13:00 - 18:50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강당·강당 2층 세미나실

주최/주관: 비판사회학회·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후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13:00 - 13:10 (10분) 소강당	비판사회학회장 인사말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장 인사말		
13:10 - 14:40 (90분) 소강당	기획세션 1 — 정치협오의 구조와 역사	협오의 수사학, 혹은 철학	발표 허병학 (가톨릭대) 토론 서호철 (한중연)
	사회 이주희 (이화여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유민주주의의 변화	발표 박찬종 (충남대) 토론 이광근 (동국대)
14:40-14:50 (10분)	휴식		
14:50 - 16:50 (120분) 기획세션 2: 소강당 일반세션 1: 강당 2층 세미나실	기획세션 2 — 현실의 협오정치	준연동행 비례대표제의 종언: 정치개혁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발표 김찬휘 (녹색당) 토론 김원 (한중연)
	사회 김철식 (한중연)	한국 시민사회의 균열과 파편화, 새로운 정치적 연대의 전망	발표 신진욱 (중앙대) 토론 정태석 (전북대)
	일반세션 1	'여성협오'에서 '젠더 갈등'으로: 2000년대 이후 젠더 관계에 대한 정치담론의 형성 구조	발표 엄혜진 (경희대) 토론 정인경 (전남 여성가족재단)
16:50 - 17:00 (10분)	사회 지주형 (경남대)	협오정치의 기원: 포퓰리즘과 열정정치	발표 강순우 (성공회대) 토론 홍성태 (고려대)
	일반세션 2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적 대화 노동정치: 가능성과 한계	발표 노중기 (한신대) 토론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사회운동의 제도화와 중간지원조직의 비판적 이해: 비수도권 중간지원 조직 청년 '활동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 최란 (전북대) 토론 이철 (한국비정규 노동센터)
17:00 - 18:30 (90분) 특별세션: 소강당 일반세션 2: 강당 2층 세미나실	특별세션 — 사회생태전환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전망과 과제	저성장 시대에 사회생태 전환을 위한 경제정책과 진보정치의 과제	발표 임은택 (계명대) 토론 양동규 (민주노총)
18:30 - 18:40 (10분)	사회 강민형 (전북대)	자본 축적체계를 넘어 탈축적 사회로의 전환	발표 김민정 (서울시립대) 토론 조민서 (위스콘신대)
	18:50	일반세션 2	역량의 정의에 입각한 일, 환경의 재정의와 생태사회적 전환의 방향
사회 이희영 (대구대)		국가통계에서 자본통계로: 예외상태의 공간, 구름마을의 탄생	발표 임미리 (자유연구자) 토론 박해남 (계명대)
18:30 - 18:40 (10분)	폐회사		
18:50	저녁식사		

춘계학술대회:
현장 스케치

“혐오와 관련하여 필자에게 가장 어렵고도 근본적인 물음은 혐오의 정의이다. 즉 어떤 행 위가 혐오 행위이고, 그것이 왜곡, 폄하, 비하, 폄훼, 차별, 증오(미워함), 싫어함(싫음)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러한 구별의 어려움은 영어, 독일어 등 다른 언어들에 서도 발견된다.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인종,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에 대한 혐오 사례, 혐오 가 가득 찬 악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이러한 확실한 사례만으로 오늘날 발생하는 다양한 혐오 현상과 이해를 충분하게 설명하기 힘들다.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과 관련된 왜곡, 가치평가와 관련된 폄하이다. 이것들은 사실 기술 및 가치평가에 있어서 그 근거의 참,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른 것들은 사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객관적 사실의 문제를 넘어선다. 필자의 핵심 물음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혐오가 차별 및 싫어함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병학, 「 혐오의 수사학 혹은 철학 」 中

“이처럼 제도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누적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을 두고 영국의 정치사회학자인 콜린 크라우치(Collin Crouch)는 세계가 ‘포스트 민주주의’(Post-Democracy)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비(非)민주주의라는 이분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을 보이는데, 형식적으로는 명백히 민주주의적 제도가 작동하고 권력교체의 가능성 역시 충분히 보장되며, 언론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인과 대중 사이의 괴리가 더욱 확대되는 등 민주주의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에 대한 환멸과 좌절, 강력한 소수집단이 다수의 보통 사람들보다 정치제도를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 정치 엘리트들이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역으로 여론을 만들어내고 조작하는 현실, 그리고 투표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나타나는 정치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박찬중,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자유민주주의의 해체 」 中

“이상의 논의들은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의 생활세계적 토대가 여러 차원에서 다원화되고 나아가 균열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념적으로는 오래된 냉전 반공보수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보수적 문화와 민주주의, 인권, 평등, 남북화해를 중시하는 다양한 진보주의 문화 간의 깊은 균열이 존재한다. 계급적으로는 고학력 중산층들이 다수를 이루는 시민사회 조직들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실업자, 비정규직, 철거민 등 민중부문의 권익쟁취와 제도개선을 목표로 한 조직들 간에 현실인식과 개혁목표의 간극이 존재한다. 진보주의적 지향의 시민사회 내에서도 사회주의, 페미니즘, 생태주의, 소비자권리, 동물권 등 각기 다른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문화공동체들 간에 명시적이고 잠재적인 갈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여러 겹의 교차하는 문화적 균열은 시민사회 내의 조직과 제도 수준의 다원성과 이질성으로 발현된다.”

신진욱, 「 한국 시민사회의 균열과 파편화, 새로운 정치적 연대의 전망 」 中

비판사회학교

<2024 비판사회학교>가 열립니다!

2024 비판사회학교 수강생모집

비판사회학회는 비판적 연구와 실천적 변화를 위한 연구자 모임입니다. 사회학에 대한 도전적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학부생의 학문적 관심사 발전을 돕고자, 여름방학 동안 <2024 비판사회학교>를 운영합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내용을 사고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관심 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회학에 대한 도전적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의 학문적 성장을 돕고자, 비판사회학교 그 네번째 학기를 운영합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함께 사고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관심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개설과목

3개 과목 개설 / 각 과목 당 강좌 5회 운영 (강좌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① 지역과 공간의 사회학
- ② 질적연구방법: 현장연구 속으로
- ③ 한국사회의 불평등

운영기간

7월 15일 ~ 8월 2일

수강료

과목당 7만원 (수강신청은 과목별로 가능하며, 과목 내 강좌별 신청은 불가함)

신청기간

6월 24일(월) ~ 7월 8일(월)

신청방법

구글폼으로 신청서 접수 [신청서 링크](#)

학회계좌로 수강료 납부 후 신청이 완료됨. 신청완료 후 이메일 개별 통지 (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 비판사회학회)

문의

sansahak1984@gmail.com

■ <비판사회학교> 강의 일정

지역과 공간의 사회학

※ 모든 강좌 진행시간은 15:00-17:30

몸, 자연, 공간의 사회학
서영표(제주대 사회학과) 7월 15일(월)

지역과 커먼즈
윤여일(경상대 사회학과) 7월 16일(화)

지역사회운동
이해진(충북대 사회학과) 7월 17일(수)

산업공간의 재편과 지역
양승훈(경남대 사회학과) 7월 18일(목)

지역과 국가공간
박지훈(부경대 글로벌 지역학연구소) 7월 19일(금)

질적연구방법: 현장연구 속으로

※ 모든 강좌 진행시간은 15:00-17:30

질적연구방법의 기본 이해
최인이(충남대 사회학과) 7월 22일(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의 연구설계
이정은(창원대 사회학과) 7월 23일(화)

역사연구, 구술사 방법론
윤종로(동국대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7월 24일(수)

에스노그라피와 현장연구의 윤리성
전의형(전북대 인류학과) 7월 25일(목)

액션리서치, 실천과 변화, 연구의 긴장감
육주원(경북대 사회학과) 7월 26일(금)

한국사회의 불평등

※ 모든 강좌 진행시간은 15:00-17:30

한국사회 불평등: 현실과 인식
황선재(충남대 사회학과) 7월 29일(월)

사회정의를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에스노그라피
박주연(연세대 사회학과) 7월 30일(화)

교육과 사회불평등: 이론과 경험적 근거
최성수(연세대 사회학과) 7월 31일(수)

세대 간 사회이동: 방법과 실제
정인권(숭실대 정보사회학과) 8월 1일(목)

반페미니즘에 대한 실증적 논의
김조은(KDI 국제정책대학원) 8월 2일(금)

2024 비판사회학교 수강안내

개설과목

3개 과목 개설,
각 과목 당 5회 강좌 운영

- ① 지역과 공간의 사회학
- ② 질적연구방법: 현장연구 속으로
- ③ 한국사회의 불평등

기간

7월 15일(월) - 8월 02일(금)
(과목별 수강일은 다음 장 참고)

수강신청 기간

6월 24일(월) - 7월 08일(월)

수강료

과목당 7만원, 3개 과목 함께 수강 시
비판사회학회 회원 자격 2년 부여
수강 신청은 과목별(5개 강좌)로 가능,
과목 내 강좌별 신청은 불가함

수강신청 방법

구글폼(<https://forms.gle/hLFUm17BXajY6KhP7>)으로 신청서를
접수, 수강료 납부 후 개별 공지
(국민은행 비판사회학회
533301-01-096442)

2023 하계 학술대회

비판사회학회 2024 하계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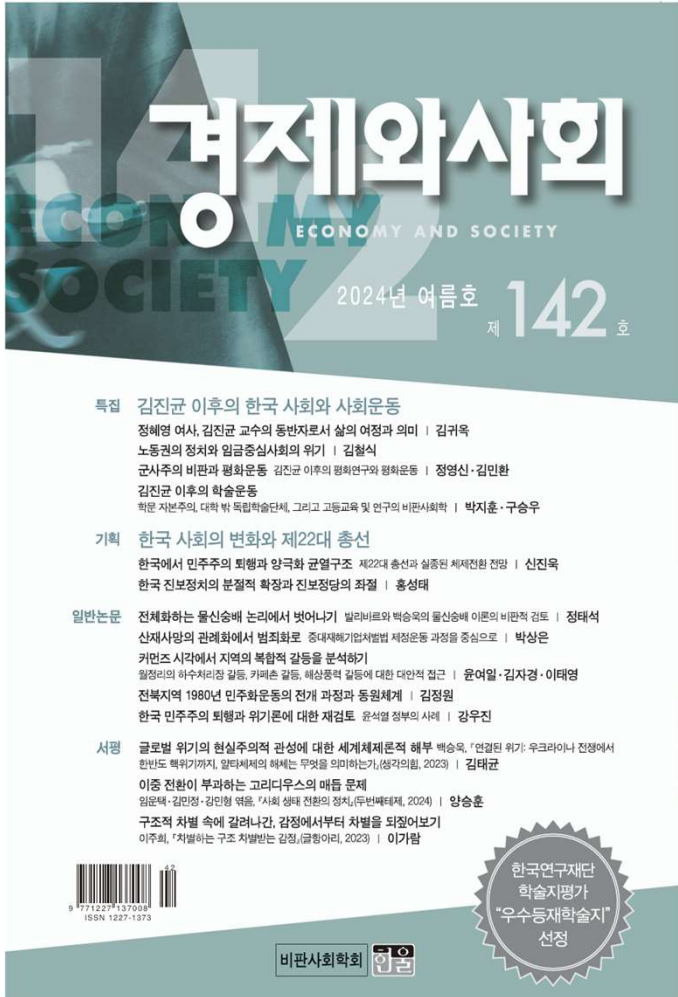
비판사회학회는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BK21 FOUR (파편사회의 사회적 연대와 통합) 사업팀, 그리고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2024년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비판적 사회과학 연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중인 대학원생들이 전문 연구자들과 동료들과 학문적 관심을 나누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판사회학을 지향하는 연구자들 간의 학문적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고 연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진솔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 날짜: 8월 21~22일 (수~목)
- 장소: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 행사 프로그램
 - 연구논문 발표 (12편)
 - 특별세션: 주제 1 학술운동과 학술생태계, 학문자본주의, 학술자본주의
주제 2 그 많던 여성연구자는 어디로 갔는가?
- 참가비: 3만 원
발표자에 한하여 교통 실비 및 숙소 지원 (단, 지역 간 이동에 한함)
- 후원: 국민은행 (예금주: 비판사회학회) 533301-01-096442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있는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행사인 만큼 선배 연구자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사 후원을 하실 회원께서는 학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판사회학회 운영위원회

〈경제와사회〉 138호(6월 발간) 목차



■ 특집: 김진균 이후의 한국사회와 사회운동

- 정혜영 여사, 김진균 교수의 동반자로서의 삶의 여정과 의미 | 김귀옥
 노동권의 정치와 임금중심사회의 위기 | 김철식
 군사주의 비판과 평화운동: 김진균 이후의 평화연구와 평화운동 | 정영신·김민환
 김진균 이후의 학술운동: 학문자본주의, 대학 밖 독립학술단체, 그리고 고등교육 및 연구의 비판사회학 | 박지훈·구승우

■ 기획: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제22대 총선

-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퇴행과 양극화 균열구조 제22대 총선과 실종된 체제전환 전망 | 신진욱
 한국 진보정치의 분절적 확장과 진보정당의 좌절 | 홍성태

■ 일반논문

- 전체화하는 물신숭배 논리에서 벗어나기 발리바르와 백승욱의 물신숭배 이론의 비판적 검토 | 정태석
 산재사망의 관계화에서 범죄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과정을 중심으로 | 박상은
 커먼즈 시각에서 지역의 복합적 갈등을 분석하기 월정리의 하수처리장 갈등, 카페촌 갈등, 해상풍력 갈등에 대한 대안적 접근 | 윤여일·김자경·이태영
 전북지역 1980년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동원체계 | 김정원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과 위기에 대한 재검토 윤석열 정부의 사례 | 강우진
 ■ 서평
 글로벌 위기의 현실주의적 관성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해부 백승욱, 『연결된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위기까지, 알타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생각의힘, 2023) | 김태균
 이중 전환이 부과하는 고리디우스의 매듭문제 임운택·김민정·강민형 엮음, 『사회생태 전환의 정치』(두번째세계, 2024) | 양승훈
 구조적 차별 속에 걸려나간, 감정에서부터 차별을 되짚어보기 이주희, 『차별하는 구조 차별 받는 감정』(글항아리, 2023) | 이가람

〈경제와 사회〉 링크

『경제와사회』 142호(2024년 여름호)는 학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저널레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와사회〉 142호 머리말

산업사회연구회 40주년, 김진균 선생 서거 20주기, 그리고 비판사회학회와 〈경제와 사회〉의 소명

■ 지주형 (편집위원장/경남대)

올해는 비판사회학회의 전신인 산업사회연구회의 결성 40주년이자, 산업사회연구회와 그 후신인 산업사회학회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김진균 선생 서거 20주기이다. 그러나 40년 전과 20년 전과 달리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어렵게 한다. 1984년은 군부독재의 암울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라는 명확한 목표가 널리 공유되고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 전두환 정부도 김진균 선생의 복직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유화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 1987년의 형식적, 절차적 민주화와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다. 2004년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IMF 구제금융과 구조조정의 자장 안에 들어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 후폭풍 속에서 나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진보정당도 원내에 진출하여 정치, 사회, 경제 개혁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더욱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2024년 현재의 시간은 어떠한가? 김진균 선생이 관여했던 노동, 평화, 학술의 문제는 전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응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이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 퇴행과 붕괴가 걱정될 정도이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노령화 및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주거 불안정, 젠더 불평등, 기후 변화 등의 심각성이 인식된 지 무려 2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른바 진보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유의미하게 개선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았을 때 22대 총선 결과도 큰 기대를 하게 만들지 않는다. 여당은 심판을 받았지만 대승한 야당은 도리어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다는 계산 하에 종합부동산세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겠다는 등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표현되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 사회전반적인 정치적 양극화는 아무런 개혁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역량의 부재, 즉 '위기관리의 위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이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 주체의 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의 형성은 널리 공유될 수 있는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담론을 필요로 한다. 특히 주체의 형성을 어렵게 하는 파편화되고 유동화된 현실 속에서,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는 비판적, 대안적 담론의 형성이라는 비판사회학회와 《경제와사회》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다음 면 계속)

김진균 선생 서거 20주기를 맞아 이번 호 특집은 김진균 이후의 한국 사회와 사회운동'을 주제로 네 편의 글을 실었다. 먼저 김귀옥의 「정혜영 여사, 김진균 교수의 동반자로서 삶의 여정과 의미」는 김진균 교수 해직 이후의 삶과 사회운동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활동에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었던 정혜영 여사의 삶을 그리고 있다. 그는 정 여사의 물적, 정신적 지원이 없었다면 김진균의 사회적 활동도 반감되었을 것이므로 정혜영이 김진균의 실천적 지식인 활동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다. 김철식의 「노동권의 정치와 임금중심사회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역사는 곧 노동권을 확장하려는 노동과 노동권을 축소하고 우회하기 위한 자본의 과정이라는 시각에서 한국사회와 노동의 변화를 추적한다. 그에 따르면 1987년 민주화 이후 1990년대 고용 및 임금 노동을 근거로 노동권(노사관계 제도), 사회적 권리(사회보험과 복지), 노동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임금중심사회가 성립했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노동의 탈경계화(임금노동-자영 경계의 모호화), 노동의 분할/위계의 정교화(업무 및 직군 차별을 통한 '공정한 차별') 등으로 인해 노동권을 보장받는 임금 노동자의 수와 노동자 정체성이 축소되면서 임금중심사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정영신·김민환의 「군사주의 비판과 평화운동: 김진균 이후의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은 김진균이 홍성태(상지대)와 공저했던 『군신과 현대사회: 현대 군사주의 논리와 군수산업에 관한 연구』(1996)의 관점에서 김진균 이후의 평화연구와 평화운동을 소개하고 평가한다. 김진균의 연구는 군산복합체에 대한 한국 연구자의 최초이자 아마도 최후의 문제제기로서, 미국 군산복합체의 실체와 그것의 세계확산을 밝히는 것을 넘어 과학기술의 군사적 활용에도 주목한 제3세대 군산복합체 연구였다. 그들은 학술적 측면에서 평화 연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김진균의 핵심적 관심사 중 하나였던 '경제의 군사화'에 대한 비판은 미흡하나, 실천적 측면에서 최근의 평화운동은 2022년 '무기박람회 저항행동'에서 보듯 'K-방산'이라 불리는 군수산업에 중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박지훈·구승우의 「김진균 이후의 학술운동: 학문 자본주의, 대학 밖 독립학술단체, 그리고 고등교육 및 연구의 비판사회학」은 김진균 이후 한국에서 '학문 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의 부상을 지적하면서 김진균 당시와 현재의 학술운동 사이의 불연속성에 주목한다. 그들은 대학 내에서 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의 자리를 찾기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고등교육과 연구에 대한 비판사회학 및 비판사회학과 대학 밖 연구자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술운동의 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22대 총선의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 이번 호 기획은 '한국 사회의 변화와 제22대 총선'을 주제로 두 편의 논문을 실었다. 신진욱의 「한국에서 민주주의 퇴행과 양극화 균열구조: 제22대 총선과 실종된 체제전환 전망」은 체제이론의 관점에서 2000년대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을 고찰한다. 그는 87년 체제에 (보수정당 집권에 따른) 민주주의의 퇴행과 (민주당 집권에 따른) 민주주의의 회복(과 경제적 불평등 해결 실패)이 반복되는 불안정성이 내재화되어 있지만, 최근 정치적 균열 구조의 변동은 이러한 체제의 전환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한다. 2017년 촛불과 탄핵 이후 진행된 정당 및 대중 모두에서의 이념적, 정서적 양극화가 사회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정책 이슈 대신 심판론이 지배했음에도 높은 투표율과 양당 독점 강화로 이어진 제22대 총선은 바로 실종된 체제전환의 전망을 보여준

(다음 면 계속)

다는 것이다. **홍성태(고려대)**의 「**한국 진보정치의 분절적 확장과 진보정당의 좌절**」은 진보정당의 위기를 진보정치의 외연 확장에 따른 이중구조와 진보정당의 사회적 기반이 유동화된 데서 찾는다. 진보정치가 자유주의 정당 내의 진보정파와 노동/사회운동에 기반한 좌파 세력 중심의 진보정당으로 분절된 결과 진보정치의 외연은 확장되었지만 진보정당의 지지기반은 도리어 취약해졌으며, 진보정치의 사회적 기반이 계급과 민족에서 환경, 젠더, 청년, 소수자, 이주민 등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배적인 정치균열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제22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좌절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두 논문은 체제전환과 진보정치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번 호 **일반 논문**으로는 다섯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한 편의 이론 논문, 세 편의 사회운동 및 갈등 분석 논문, 그리고 한 편의 정치학 논문이 실렸다. 먼저 **정태석**의 「**전체화하는 물신숭배 논리에서 벗어나기: 발리바르와 백승욱의 물신숭배 이론의 비판적 검토**」는 백승욱과 발리바르(É. Balibar)의 논의를 포함한 최근의 마르크스주의 물신숭배 이론을 비판하고 자신의 대안을 제시한다. 마르크스(K. Marx)의 <자본(Das Kapital)> 제1권에서 제시된 물신숭배 비판은 이후 한편으로 인간의 소외나 사물화에 대한 비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를 자연적인 것으로 신비화하는 전도된 인식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했는데, 이 두 가지 방향의 이론화 모두 자본주의의 사회구조가 물신숭배에 의해 총체적으로 규정되고 재생산되거나 이에 대한 비판이 특정한 층위에 국한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계급투쟁과 이데올로기 투쟁에 대한 사유를 제약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따라서 그는 물신숭배의 효과가 계급적·사회적 위치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주장한다. **박상은**의 「**산재사망의 관례화에서 범죄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과정을 중심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의 사례를 통해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성과를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산재사망을 범죄화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을 형사분야에만 국한하고 예방적 규제를 대체 못하는 불완전한 신자유주의적 해결책이며, 이에 한국의 운동단체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작업장 공동규제에 더 중점을 두었다. 그럼에도 산재사망의 범죄화가 추진된 것은 운동단체의 낮은 영향력, 규제 집행에 대한 불신, 낮은 노조조직률로 인한 공동규제의 비현실성 등 때문으로, 그는 결국 영업취소/정지, 이행관찰 등 각종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조항들은 삭제되고 경영책임자 개인 처벌이나 기업 벌금 등만 남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윤여일·김자경·이태영**의 「**커먼즈 시각에서 지역의 복합적 갈등을 분석하기: 월정리의 하수처리장 갈등, 카페촌 갈등, 해상풍력 갈등에 대한 대안적 접근**」은 커먼즈의 유형을 세분화 하고 주체의 다양성에 따른 차이를 드러내며, 마을 단위를 넘어 지역 및 중앙정부 수준의 힘까지 고려하는 다중 스케일 접근법을 통해 제주도 월정리에서 진행중인 커먼즈를 둘러싼 갈등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커먼즈는 유토피아가 아니고 끊임 없이 새로운 갈등을 발생시키며, 따라서 커먼즈에 대한 고도화된 활용과 관리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민주주의를 신장시켜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정원**의 「**전북지역 1980년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동원체계**」는 1980년대 전북지역의 민주화운동을 학생 운동의 대중조직화 및 투쟁의 단계적 발전, 그리고 동원체계, 소집단 간 의사소통연결망, 대중지도자,

(다음 면 계속)

중위 동원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1980년 민주화 운동을 시간적으로는 박정희 피살 이후에 연속된 것으로, 공간적으로는 광주 5.18 항쟁을 넘어서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시공간적 지평을 확대한다. 강우진의 「한국 민주주의 퇴행과 위기론에 대한 재검 토: 윤석열 정부의 사례」는 한국 민주주의의 퇴행 수준을 꼼꼼히 따져 본다.

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검찰통치의 전면화로 인해 국가기관들 사이의 견제와 균형, 법의 지배, 시민적 자유와 언론 자유의 후퇴에서 퇴행이 일어났지만 이것이 곧 전체적 퇴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선거 체제의 역동성, 촛불 항쟁을 통한 파수꾼 민주주의의 경험, 행정부 권력을 견제하는 사법부의 역할 등은 이러한 퇴행으로부터 복원 탄력성의 원천이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제거하려고 하는 적대정치 of 일상화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이번 호에는 학회원들의 책 세 권에 대한 서평을 실었다. 김태균의 「글로벌 위기의 현실주의적 관성에 대한 세계체제론적 해부」(백승욱, 『연결된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반도 핵 위기까지, 알타체제의 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의 힘, 2023)는 백승욱의 저작이 위기의 연결된 구조사에 대한 사회학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수작이고, 알타체제의 해체 과정에서 위기의 연결성이 발생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이 책이 채택하고 있는 세계체제론적 접근의 현실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적절성, 우크라이나 전쟁과 알타체제 붕괴의 직접 관련성, 글로벌 사우스를 경시하는 다분히 중심부적 시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승훈의 「이중 전환이 부과하는 고리디우스의 매듭 문제」(임운택·김민정·강민형 엮음, 『사회 생태 전환의 정치』, 두번째테제, 2023)는 2023년 비판사회학대회의 발표문들을 업데이트한 이 책이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대한 논변들을 종합하고, 이 속에서 공공성과 진보적 계급정치, 국가의 산업정책의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그는 이중 전환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민영화, 탄소 배출, 생산직 고용 감소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으로 대항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번에 자르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매듭을 푸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이가람의 「구조적 차별 속에 갈려나간, 감정에 서부터 차별을 되짚어보기」(이주희, 『차별하는 구조, 차별 받는 감정』, 글항아리, 2023)는 차별 경험에 대해서는 그러한 차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드러내고, 차별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중의 감정이 그러한 구조 속에서 관리된 감정임을 드러냄으로써 차별의 거시적인 구조적 차원과 미시적인 감정적 차원을 함께 보는 동시에 차별적 구조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의 마음을 차분히 성찰하고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저자의 시도를 높게 평가한다.

끝으로 다음 호에 투고되는 논문부터 <경제와 사회>의 원고 작성 요강이 바뀔을 알린다. 참고문헌 인용 및 목록 작성 방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수정했다. 또한 다른 학술지 기준이나 《경제와사회》에 투고되는 원고의 평균적 분량에 비해 원고 매수 기준이 지나치게 적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분량 기준을 기존의 A4 17매에서 20매로 소폭 늘렸다는 것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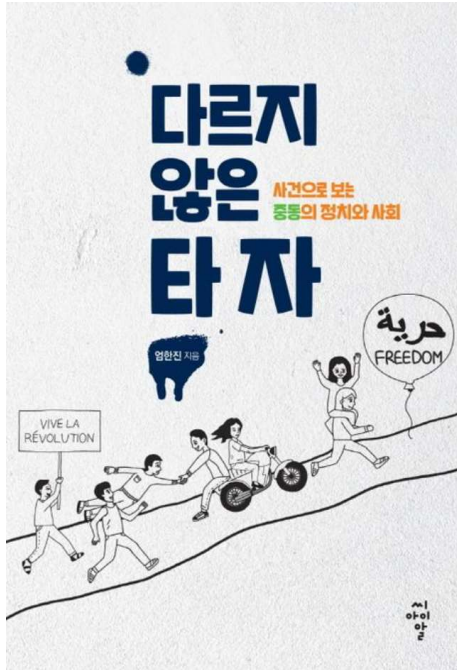
(끝)

비판사회학회가 이사했습니다!



- ◆◆ 더 안정적인 학회 활동을 위해 비판사회학회 사무실이 이전을 하였습니다.
- ◆◆ 회원들의 자율적인 공간 이용이 가능하며 25명(최대 30명까지)이 수용 가능합니다.
- ◆◆ 여러 단체가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용을 위해선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려주고, 이용 후 정리정돈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19길 13 삼광빌딩 3층(영등포구청역 6번출구 7분거리)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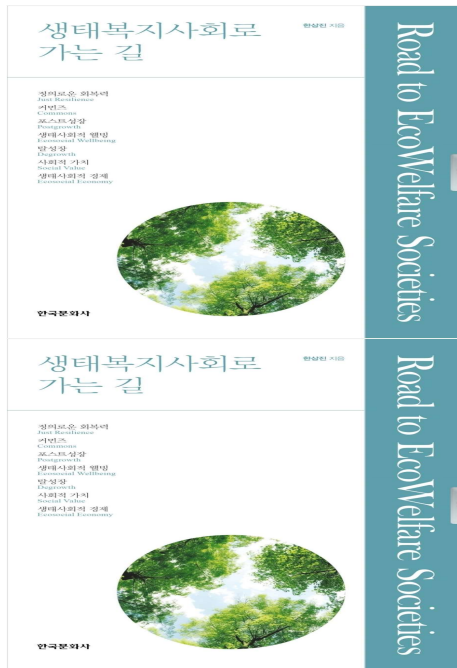
다르지 않은 타자: 사건으로 보는 중동의 정치와 사회

씨아이알, 2024년 3월, 260쪽

엄한진 (한림대 사회학과)

여섯 개의 장, 24개의 글로 구성된 이 책은 중동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독자들이 이 지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이슈나 사건을 소개하고, 그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회 현상을 다루며 그 현상과 연관된 개념이나 역사, 이론을 덧붙인다.

저자는 중동, 아랍세계, 이슬람 사회를 극단적 폭력성, 이질성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현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보는 일반적인 인식에 동참하기보다 그들이 지닌 우리와 다르지 않은 다양한 측면의 모습을 보여주려 하였다.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르지 않은 중동', '우리과 닮은 중동', '보편적인 중동', '보편적인 이란'과 같은 표현은 이러한 경향이 반영된 것이다. 이질적인 면보다 우리와 유사한 면, 종교적·종족적 특수성보다 정치·사회적인 면에 주안점을 둔 이 책이 중동, 아랍, 이슬람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지역에 대한 과학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태복지사회로 가는 길

한국문화사, 2024년 4월, 336쪽

한상진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이 책은 생태복지국가를 비롯한 생태복지체제가 생태복지사회라는 맥락에서 구체화되어야 함을 지향한다. 한편 이 책에서 숲, 먹거리 등을 사례로 삼은 까닭은 생태복지의 핵심이 인간과 인간너머 존재 모두의 웰빙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쟁점으로 호흡 및 섭생의 생명활동 기반에 대한 관심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생태복지사회는 인간적 웰빙이 탐욕스런 성장 추구의 경로에서 전환하여 생태환경의 보전 방향으로 재정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은 물론, 경제성장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 체계에 대한 정밀 검토 및 대안의 모색을 요청한다. 이 책은 생태복지국가의 작동에 관한 구체적 분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생태복지사회라는 경로에 대한 다양한 지향들을 다루고 있다.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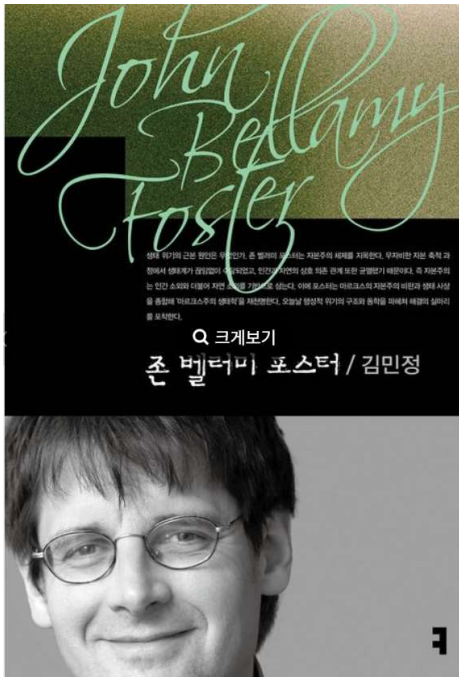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청년이라는 문제 베스텐트 한국판 10호

사월의 책, 2024년 4월, 312쪽

홍찬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성 전쟁’과 ‘젠더 갈등’의 시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응답할 것인가? 이 책은 ‘포르노그래피’를 둘러싼 최신 논쟁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 귀를 기울인다. 특히 30대 남녀 청년 연구자 다섯 명이 대거 참여한 한국판 특집은 ‘일베’의 남성성 연구, 청년세대 담론의 비판적 재구성, 20대 페미니스트 여성 참여관찰, 젠더 갈등의 정치적 의미 고찰, ‘청년 여성 정치’를 현장에서 수행해온 활동가의 회고 등 청년 의제에 대한 청년 연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조사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저널 WestEnd(베스텐트) 최근 호의 국문 번역판이자, 후반부의 한국판 특집으로 한국 청년문제를 다루었습니다. 한국판 특집 마지막 논문은 홍찬숙 선생님의 논문입니다)



존 벨러미 포스터

커뮤니케이션북스, 2024년 5월, 143쪽

김민정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오늘날 생태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존 벨러미 포스터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목한다. 무자비한 자본 축적 과정에서 생태계가 끊임없이 수탈되었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 관계 또한 균열했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는 인간 소외와 더불어 ‘자연 소외’를 기반으로 삼는다. 이에 포스터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과 생태 사상을 종합해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을 재천명한다.

포스터는 정치경제학과 마르크스주의 이론 연구자로, 마르크스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유물론적 자연관’을 포착해 마르크스의 생태 사상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 생태학의 핵심을 이루는 ‘물질대사론’을 설명하고, ‘독점·금융 자본’과 ‘제국주의’ 그리고 생태 문제의 관계를 해설하며, 날로 불거지는 ‘자연 자본의 축적’과 ‘자연의 금융화’ 문제를 짚는다. 오늘날 행성적 위기의 구조와 동학에 대한 분석, ‘생태학적 혁명’의 전망을 담았다.

신입회원

- 정회원 송인재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한상진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김태현 (성공회대 사회학과) 김덕민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정새한(계명대 사회학과) 유은희 (충북대 사회학과)
- 준회원 최은주(서강대 사회학과) 고은영(서강대 사회학과)
 김선영(충북대 국가정책대학원)

회원현황
(5.22 현재)

- 총회원 257명 (정회원 226명 / 특별회원 15명 / 준회원 14명 / 기관회원 2개)

(※ 마지막 회비 납부일자가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중지되고, 회원현황에서 제외됩니다.)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4.1~6.28)

- 4월 11일 새로운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미팅 개최
- 4월 19일 비판사회학회 제 4차 운영위원회 개최
- 4월 19일 비판사회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정치혐오와 혐오의 정치, 한국학 중앙연구원)
- 5월 17일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 준비모임
- 6월 1일 비판사회학회 제 5차 운영위원회 및 새 사무실 집들이
- 6월 28일 하계학술대회 준비모임 개최
 비판사회학회 제 6차 운영위원회 개최



2024년 임원진

- 운영위원회

회장 최현 (제주대)	부회장 이항우(충북대)	부회장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운영위원장 신희주(가톨릭대)	연구위원장 이정은(창원대)	운영위원 강민형(전북대)
운영위원 강인화(서울대)	운영위원 김란(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운영위원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김재형(방송통신대)	운영위원 김정환(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운영위원 김주호(경상대)	운영위원 박상희(서울시립대)	운영위원 박지훈(부경대)
운영위원 서선영(충북대)	운영위원 육주원(경북대)	운영위원 이도훈(서울대)
운영위원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운영위원 전원근(제주대)	운영위원 전의령(전북대)
운영위원 조혁진(노동연구원)	운영위원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위원 홍덕화(충북대)	운영위원 환현일(창원대)	운영간사 장병호(중앙대)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지주형(경남대)	편집부위원장 유형근(부산대)	편집위원 권오용(충남대)
편집위원 김도균(제주대)	편집위원 김민정(서울시립대)	편집위원 김여진(강원대)
편집위원 김철효(경상국립대)	편집위원 노승미(중앙대)	편집위원 박수민(한국노동연구원)
편집위원 박정미(충북대)	편집위원 박찬중(충북대)	편집위원 박치현(대구대)
편집위원 서영표(제주대)	편집위원 유성희(한경국립대)	편집위원 이정연(서울여대)
편집위원 이현옥(서강대)	편집위원 정재원(국민대)	편집위원 정태석(전북대)
편집위원 조은주(전북대)	편집위원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편집위원 하대청(광주과학기술원)
편집위원 홍성태(고려대)	재외편집위원 구해근(Univ. of Hawaii at Manoa)	
재외편집위원 권학준(리쓰메이칸대)		
재외편집위원 박현옥(York University)		편집간사 강석남(중앙대)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연 24만원 (월2만원)	(2) 연12만원 (월1만원)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판사회학회)